

## 중국의 '쌍순환' 발전전략에 따른 한국기업의 대응방안



# 중국의 '쌍순환' 발전전략에 따른 한국기업의 대응방안

부산연구원 경제산업연구실  
장정재 연구위원 (jangjj@bdi.re.kr)

## ■ 목 차

1. <14·5 계획>과 쌍순환 경제전략
2. 중국 국내 경제구조의 개혁 방향
3. 쌍순환 전략의 유망 산업
4. 전망 및 한국기업의 대응방안

- 코로나19 지속으로 중국 <14·5 계획>이 시작되는 2021년부터 경제·사회 발전이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음.
- 중국 정부는 세계경제 침체 속에서 보호무역주의 및 GVC(글로벌 가치사슬) 변화에 대해 자체적인 투자와 소비로 이를 해결하고자 함.
- ‘쌍순환’은 국내 대순환을 중심으로 국내·국제 순환을 상호 촉진한다는 새로운 발전전략으로, <14·5 계획> 기간 도시·농촌 격차 및 지역 간 불균형, 개인소득 격차, 노동집약적 산업 위주의 기술력 부족 등을 해결하는 내수경제 활성화에 집중하고자 함.
- ‘쌍순환’ 발전전략 아래 중국은 제조 강국 확립을 위한 고품질 생산과 기술 확보로 산업고도화를 추구하기 때문에 한국은 유망업종에 대한 발굴 및 지원책 마련이 필요함.

## 1. <14·5 계획>과 쌍순환 경제전략

### 1) <14·5 계획> 주요 내용

- 중국 <14·5 계획>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향후 5년의 중국 경제사회 발전 목표와 방향을 제시하고 있음.
- 중국 <14·5 계획>에서는 5개년 계획과 함께 15년 장기계획 목표를 동시에 제정함
  - 중국 정부는 2035년까지 기본적인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의 건설을 이루기 위한 9대 <2035년 장기목표(2035年远景目标)>를 발표함.
  - <13·5 계획>에서는 빈곤구제, 빈곤탈출을 하고 대외개방의 수준을 제고하는 자유무역시험구 건설 촉진을 통해 전면적 샤오캉(小康) 사회 실현을 목표로 함.
- <14·5 계획> 시기 코로나19 영향에서도 중국 경제가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.
  - <13·5 계획> 시기 경제성장률(국내총생산)을 연평균 6.5% 이상으로 목표한 것과 비교하면 <14·5 계획>에서는 경제성장 목표가 하락할 전망이다.
- 중국사회과학원 공업경제연구소 5~6%, 국금증권연구소(国金证券研究所) 5% 내외 5% 성장을 예상함(国金证券研究所 2020/10/22).

- 갑작스러운 코로나19 발생은 중국 경제성장률에 강한 영향을 주고 있으나 2021년에는 6% 성장률을 기대함.
  - 2020년 중국 1~4분기 GDP 성장률은 -6.8%, 3.2%, 4.9% 및 6.5%로 전개되었으며, 2020년 2.3% 성장함.
  - 국제통화기금(IMF)는 2020년 세계 경제 성장률을 -4.4%로 전망했는데 스페인(-12.8%), 이탈리아(-10.6%), 프랑스(-9.8%), 독일(-6.0%), 일본(-5.3%), 미국(-4.3%) 등 대부분 국가가 마이너스 경제 성장률을 예상함.
- <14·5 계획> 종료 시점인 2025년이면 중국의 GDP는 134조 1,138억 위안, 구매력 평가(purchasing power parity, PPP) 30조 5,300억~131조 4,200억 위안으로 세계 비중이 17.3%에서 19.8% ~ 20.3%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함.
  - 중국의 2019년 GDP는 22.5조 달러이며 2025년 30.5~31.4조 달러<sup>1)</sup>로 예상함.
  - 2025년 중국 1인당 GDP는 9만 5,002~9만 7,749위안이며, 미국 1인당 GDP 대비 2019년 25.8%에서 2025년 32.4~33.3% 수준으로 높아짐.(표 1-1 참조).

---

1) 본고의 달러는 기어리-카미스 달러(국제 달러)를 기준으로 함. 가치 비교의 잣대로 쓰이는 국제 기어리-카미스 달러(Geary-Khamis dollar)는 특정 시점에 미국 달러와 미국과 동일한 구매력이 동일한 가상 통화 단위로, 다양한 국가 및 시장의 구매력 패리티와 국내총생산을 결정하고 비교하기 위해 다양한 목적으로 경제 및 금융 통계에 널리 사용됨.

[표 1] <14·5 계획> 시기 중국 GDP 및 1인당 GDP(2019~2025년)

		단위	2019년	2025년	2019~2025년 연평균 증가량(%)
GDP	중국	조 위안	99.09	134.31~138.19	5.2~5.7
		달러	22.527	30.53~31.42	5.2~5.7
	세계	달러	130.07	154.41	2.9
세계 대비 중국 GDP 점유율		%	17.3	19.8~20.3	2.5~3.0
1인당 GDP	중국	위안	70,892	95,002~97,749	5.0~5.5
		달러	16,117	21,679~22,306	5.0~5.5
	미국	달러	62,527	66,936	1.1
미국 대비 중국 1인당 GDP 수준		미국=100%	25.8	32.4~33.3	6.6~7.5
노동생산성	중국	달러	30,143	40,686	5.1~5.6
	미국	달러	128,447	133,473	0.6
미국 대비 중국 노동생산성 수준		미국=100%	23.5	30.5~32.5	7.1~9.1

주: 2019년은 통계국 자료에 근거하며, 1인당 GDP, GDP, 노동 생산성의 Geary-Khamis 달러 데이터는 세계은행 WDI 데이터베이스에서 인용함. 2020~2025년은 胡鞍钢(2020) 참조  
자료: 胡鞍钢(2020, 77) 표수정

- <14·5 계획>에서는 중국 경제를 ‘질적 변화, 효율 변화, 동력 변화’ 로드맵을 구체화하는 5대 분류의 37개 실물 지표로 관리함.([표 2] 참조)
  - 오랫동안 추구해온 양적 성장에서 벗어나는 질적 변화를 도모하고자 함.
    - 중국의 상품과 서비스의 생산은 어느 정도 충족되었으나 품질 향상은 여전히 부족하고 자국 내 소비자들의 품질 표준 요구도 높아진 상황이 반영됨.
  - 고품질 변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효율성 향상도 필수적이며, 사회 전반에서 업적 평가에 효율성이 척도가 됨.
    - 더이상 일자리 개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소득, 복리후생, 근무환경 등 요인이 효율성을 평가하는 척도로 도입됨.
  - 양질의 인력자원 확보가 미래성장과 국가 경제발전에 핵심 동력으로 고려됨.

- 기존 자원 동원 중심의 경제발전 시대는 이제 한계에 도달하였기 때문에 교육기회 확대 등을 통한 양질의 인력 확보·공급이 중요해짐.
- 세계화와 정보화의 가속화는 국가 간 경쟁이 한층 가열되고 있으며 고속런 다기능 인력 확보가 국가경쟁력의 요체가 됨.

[표 2] <14·5 계획>의 경제사회발전 주요 지표(2019~2025년)

지표	2019년	2020년 (예측)	2025년 (목표)	연평균증가 속도(누적)	속성
<b>고품질 경제발전(6개)</b>					
GDP조 위안)	99	101	>132	>5.5%	기대성
전원 노동생산성 (만 위안/명)	11.5	>12	>15.3	>5.5%	기대성
GDP 대비 서비스업 비중 증(%)	53.9	55.4	58.4	[3]	기대성
GDP 대비 신경제 증가율(%)	16.3	17	19	[2]	기대성
상주인구 도시화율(%)	60.6	61.1	65.6	[4]	기대성
호적인구 도시화율(%)	44.4	45.5	50.5	[5]	제한성
<b>혁신 구동 발전(7개)</b>					
인재 총량(억 명)	1.8	1.8	2.4	[0.10]	기대성
GDP 대비 R&D 투자 비중(%)	2.23	2.3	2.6	[0.30]	기대성
인구 1만 명당 특허 보유량(건)	13.3 (186만 건)	14.3 (상반기)	20 (280만 건)	.	기대성
PCT 국제 특허 출원 건수(만 건)	5.7	5.9	> 10	.	기대성
과학 기술 진보 기여율(%)	59.5	60	64	[4]	기대성
고정 광대역 네트워크 가정 보급률(%)	91.5	.	.	.	.
모바일 광대역 네트워크 가입자 보급률(%)	93.6	97.1	99	[2]	기대성
<b>고품질 민생발전(9개)</b>					
주민 1인당 가처분소득 증가(%)	5.8	>6.5	.	>5.5	기대성
인간개발지수(HDI, Human Development Report)	0.758 (2018년)	0.764	0.786	[0.05]	기대성
평균 기대수명(세)	77.3	.	.	[1]	기대성
고등교육 순취학률(%) <sup>2)</sup>	51.6	.	57	[4]	기대성
취학 전 교육 3년 입원율(%)	79.6	.	>90	.	제한성
근로연령인구 평균교육연수(년)	10.8	10.8	11.2	.	기대성

농촌 상대적 빈곤인구 퇴치 (만 명/년)				[7,500]	제한성
도시의 신규 취업자 수(만 명)	1,352	>1,000		[5,000]	제한성
기본 양로보험 가입률(%)	(9.67억)	90	>95		기대성
<b>고품질 생태발전(13개)</b>					
단위 GDP 에너지소모 감소(%)	2.6[13.5]			[20]	제한성
청정에너지가 1회 에너지 소비의 비중(%)	23.4			[>3]	제한성
단위 GDP당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소(%)	4.1	[18]		[23]	제한성
삼림 커버리지(%)				[1.4]	제한성
삼림 축적량(억 입방미터)	175.6		185	[10]	제한성
공기질량 양호일수 비율(%)	82		>85		제한성
초미세먼지(PM2.5) 기준 미달 및 도시 농도저하(%)	2.4[26.3]			[15]	제한성
III수체 대비 동질이나양호 비율(%)	74.9				제한성
V수체 대비 열등 비율(%)	3.4				제한성
화학적 산소요구량 감소(%)	3.1[12.6]	[10]		[10]	제한성
암모니아 질소화물 배출량 감소(%)	2.7[9.8]	[10]		[10]	제한성
이산화황 배출량 감소(%)	6.7[19.7]	[15]		[15]	제한성
질소산화물 배출량 감소(%)	4.9[14.9]	[15]		[15]	제한성
<b>고품질 문화발전(2개)</b>					
문화관광산업 GDP 비중(%)	9.0 (2018년)		>11	[>2]	기대성
국내관광객 수(억 명)	60.1		75		기대성

주: ① GDP, 전원 노동생산성, 1인당 평균 가처분소득 증가 속도를 비교 가능한 가격으로 계산.  
 ② [ ] 내 수치는 누계수이며, PM2.5 미만은 연간 35 $\mu\text{g}/\text{m}^3$ 을 초과하는 것을 뜻함.  
 ③ 문화관광 및 관련 산업의 증가치 및 비중은 『중국통계요약 2020(中国统计摘要2020)』을 참조.  
 ④ 2018년 혹은 2019년 데이터는 <중국통계요약 2019년(中国统计摘要2019)>, <중국통계요약2020(中国统计摘要2020)>, <인류발전보고서 2019(人类发展报告2019)>을 참조.  
 자료: 胡鞍钢(2020, 90) 표수정

2) 전체 인구(고등교육대상) 대비 실제 고등교육 이수 비율. 2020년 전국 고등교육 순입학율 = 2020년도 전국고등교육 기관의 재학생수 ÷ 전국 18~22세 인구수 × 100%

- 〈14·5 계획〉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코로나19 영향 지속으로 경제성장의 불확실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두 가지(저성장과 고성장) 경제성장 목표를 설정함.([표 3] 참조)
- 코로나19가 진정세로 돌아서면 2021년 7.0% GDP 성장률 달성을 예측하며 2025년까지 연평균 5.7% 성장할 것으로 전망함.

[표 3] 〈14·5 계획〉 시기 경제성장 예측(2019~2025년)

	2019년	2021년	2025년	2019~2025 연평균 증가 속도
<b>시나리오 1: 고성장</b>				
실물자본증가율(%)	7.1	8	5.6	6.4
인적자본증가율(%)	4.1	3.3	2.7	3
TFP 성장률(%)	1	1.3	1	1
GDP 성장률(%)	6.1	7.0	5.3	5.7
GDP(조 위안, 2019년 가격)	99.09		138.19	5.7
1인당 GDP(위안, 2019년 가격)	70,892	78,062	95,792	5.5
노동생산성(위안, 2019년 가격)	115,009	126,231	159,483	5.6
<b>시나리오 2: 저성장</b>				
실물자본증가율(%)	7.1	7.5	5.4	6.2
인적자본증가율(%)	4.1	3.2	2.5	2.8
TFP 성장률(%)	1	0.9	0.5	0.7
GDP 성장률(%)	6.1	6.3	4.5	5.2
GDP(조 위안, 2019년 가격)	99.09		134.31	5.2
1인당 GDP(위안, 2019년 가격)	70,892	76,865	92,288	5.0
노동생산성(위안, 2019년 가격)	115,009	124,934	155,006	5.1

주: 2019년은 《중화인민공화국 2019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통계공보》에 근거하고, 실물자본의 보유량은 영속재고법에 근거·계산하며, 인적자본의 보유량은 15~60세 노동연령 인구수와 평균 교육연수를 곱한 계산에 근거. TFP는 전 요소 생산성을 나타내고 있으며, 실물자본과 인적자본의 산출탄력성은 모두 0.5임.

자료: 胡鞍钢(2020, 95) 표수정

- 중국은 2025년까지 신형 공업화, 정보화, 도시화, 농업 현대화 실현하는 등 4대 현대화된 경제 시스템을 구축을 목표로 설정함.



- 현대화된 경제 시스템 구축으로 중상위 소득수준이 고소득 수준으로 진입하는 중진국에 반열에 진입함.
- 중국 경제전문가들은 <14·5 계획> 기간 동안 중국 산업 구조는 1차 산업, 2차 산업의 비중은 계속 낮아질 것이며 3차 산업 비중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함.
  - 1차 산업은 2019년 7.1%에서 2025년에는 6.2% 수준으로 감소하며 2차 산업은 2019년 39.0%에서 2025년 35.8% 수준으로 감소 전망함.
  - 3차 산업은 2021년 54.3%에서 2025년 58.0%로 증가 예상하나 선진국과 비교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에 불과함.

[표 4] <14·5 계획> 시기 중국 산업 구조 예측(2019~2025년) (단위: %)

	2019년	2021년	2025년	2019~2025년 변화량
1차 산업	7.1	6.8	6.2	-0.9
2차 산업	39.0	38.9	35.8	-3.2
이중 공업	32.0	32.5	28.2	-3.8
3차 산업	53.9	54.3	58.0	4.1

주: 2019년은 <중국통계요약 2019>에서 참조, 2021~2025년은 胡鞍钢(2020) 참조  
자료: 胡鞍钢(2020, 96) 표수정

## 2) 쌍순환 발전전략 도입

- 쌍순환은 중국정부가 대외 교역환경의 불확실성 증가에 따른 대응 차원에서 추진하는 중장기 경제발전 전략임.
  - 내수 위주로 자립경제 구축에 방점을 두고서, 내수와 수출 양방향 순환의 상호 촉진하도록 함.
- 쌍순환은 국내 대순환을 중심으로 국내·국제 순환을 상호 촉진한다는 새로운 발전전략으로, 미·중 간 무역전쟁 장기화에 대응하기 위해 중국이 내수시장을 활용하여 자체적으로 선순환할 수 있는 경제체제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함.

- 쌍순환은 2020년 5월 14일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에서 제기된 이래 5월 23일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13기 3차 전체회의, 7월 30일 중공중앙정치국회의, 10월 22일 중공중앙정치국상무회의 등에서 언급되다가 <중공중앙국민경제사회발전 제14차 5개년 계획과 2035년 장기목표에 대한 건의>에서 주요 경제정책으로 발표됨(김동하 2020, 16).
- 이에 중국은 내순환(內循環, 자급자족의 경제체 완성)과 외순환(外循環, 지역공급망 및 기술협력을 위한 국제협력 개편) 계획으로 <14·5 경제 계획> 청사진을 제시하는 쌍순환(雙循環·이중순환) 발전전략을 제시함.

[그림 1] 내순환 위주의 쌍순환 경제구도



자료: 中信証券研究报告, 21世纪商业评论(2020.12.22.), 코트라 해외시장뉴스(2020.10.20.) 재인용

### 3) 쌍순환 전략의 출현 배경

- 위드코로나(WITH Corona) 시대 GVC(Global Value Chain, 글로벌 가치사슬) 재편 및 보호무역주의 확대 등 복잡한 대외 환경으로 중국의 <14·5 계획>은 시작부터 어려움에 직면해 있음.
- 또한, 대내적으로도 저출산·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노동인구 급감, 소비층과 트렌드 변화의 진행으로 새로운 전환점이 필요한 상황에 직면함.
- 중국 정부는 코로나19와 미·중 무역갈등에서 촉발된 소비 경직성을 내수 활성화로 풀어내고자 함.

- 코로나19 지속으로 <14·5 계획>이 시작되는 2021년부터 경제·사회 발전이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음.
- 중국 내부적으로도 저출산·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노동인구 급감, 소비층과 트렌드 변화의 진행으로 새로운 전환점이 필요한 상황에 직면함.
- 세계 경제 침체 속에서 보호무역주의 및 GVC 변화에 대해 중국은 자체적인 투자와 소비로 이를 해결하고자 함.
  - 이를 위해 내륙 지역의 낙후된 개발에 투자를 확대하고 부가가치 낮은 임가공 제조업을 성장시키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음.
  - 즉, 구매력 확충과 인공지능(AI) 개발, 5세대(5G) 통신 등 내수 경제에 집중하겠다는 것이 쌍순환 전략의 주요 내용임.
- 대외적으로는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정부로 대표되는 보호무역주의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(코로나 19) 확산 등으로 인해 수출 위주의 성장 전략이 한계에 도달함(중앙일보 2020/10/29).
- 중국은 <13·5 계획> 성과에 이어서 지속적인 혁신으로 경제발전과 민생경제를 개선해야 하는 당면과제를 안고 있음.
  - 코로나19 속에서 디지털화가 가속되는 시점이기 때문에, 미래산업 육성을 통한 신흥산업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.
    - 코로나19 영향은 ‘라이브커머스(live commerce, 直播带货)’가 소비판매의 중심으로 부상하였고 경제활동 공간이 온라인으로 이동함.
    - 중국은 5G 전면 보급에 나섰고 새로운 과학기술과 산업혁명의 다른 성과들도 빠르게 확산하고 있음(인민화보 2020/12/11).

## 2. 중국 국내 경제구조의 개혁 방향

### 1) 내수경제 활성화

- 코로나19 영향 지속으로 사람, 물자의 이동 제한에 따라 중국 경제 순환 시스템의 이상 감지 및 경제 구조의 체질 개선 필요성 부각됨.
  - 코로나19는 사람·물자의 활동과 이동 정지에 의한 수요와 공급의 멈춤으로 경기순환 패러다임도 문제가 발생함.
  - 코로나19가 불러온 고용위기 가중 및 4차산업혁명 가속화 등 산업현장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산업구조 재편 요구에 직면함.
- 일대일로 추진을 통한 대외 교류협력 사업을 축소하고 내수 확대에 방향 전환
  - 2013년부터 추진되어 온 중국 중심의 육상 실크로드와 해상 실크로드를 연결하는 일대일로 전략은 축소됨.
    - 코로나19의 중국 책임론과 미·중 패권경쟁으로 양 진영 간 이념 갈등 격화 및 반중국 정서 출현으로 일대일로 추진 동력 상실함.
- 중국 정부는 기술 개발, 업그레이드 및 제품 고도화 등으로 산업 구조를 혁신하고 업그레이드를 도모하고자 함.
  - 제조업의 핵심 부품 국산화율을 높이고 대외 의존적인 기술의 자립도를 향상해서 고부가가치로 산업 업그레이드를 추진함.
  - 한계기업 및 좀비기업 청산과 국유기업 개혁 등 구조개혁도 강력하게 추진함.
- <14·5 계획> 기간 쌍순환 전략을 통해 중국 자체적으로 문제가 된 도시·농촌 격차 및 지역 간 불균형, 개인소득 격차, 노동집약적 산업 위주의 기술력 부족 등을 해결하는 내수경제 활성화에 집중하고자 함.
  - 경제여건이 불확실한 상태에서 가계 소득 증대로 소비 수요 확대를 유도함.
  - 저임금 노동자와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가계 소득 증가에 지속적 관심을 기울여서 소비가 안정적으로 증가하도록 함.

## 2) 보호무역주의 심화 속 GVC 재편에 대비

- 코로나19 영향 지속 아래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기업은 생산거점 이전 및 공급선 다변화 등 GVC 재편 가속화 함.
  - 미국 바이든 행정부 출범으로 미·중 관계 개선 기대 있으나 보호무역주의는 지속될 전망이다.
- 한국의 주요 교역 국가들은 리쇼어링(Reshoring, 해외 진출 제조기업의 국내 유턴), 니어쇼어링(Near-shoring, 인접국가로 생산라인 분산), 다변화(Diversification) 등 전략으로 GVC 재편 관련 정책방안 추진하고 있음.
  - 미국은 역내 공급망 구축을 위한 리쇼어링·니어쇼어링 정책 추진 및 인센티브 제공하고 유럽은 역내 생산망 구축 및 소싱 지역화 확대를 위한 리쇼어링 지원정책 추진함 (코트라 2020, 4).
  - 아세안은 중국대체 생산기지 역할 수행 및 기술협력을 위한 투자유치 정책 활성화에 나서고 있으며 인도에서는 ‘자립인도’ 정책으로 GVC 내 인도 중심역할 강조 및 대규모 인프라 투자 지속함.
- 한국의 대중국 교역 비중이 감소하고 미국 바이든 정부 출범에 따라 GVC 변화에 적극 대응이 필요한 상황임.
  - 포괄적점진적한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(CPTPP) 현실화를 고려한 아세안 국가 중심의 새로운 GVC가 발전 가능에 대비가 필요함.
  - 미국은 소비재 및 산업재 전반에 걸쳐 시장의 해외 의존도를 낮추고 자국 중심의 공급망을 구축해 나가고 있으며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 정권에서 탈퇴한 CPTPP를 재협상할 것으로 예상함(FedEx코리아 2020/12/30).

## 3) 과도한 지방정부 간 경쟁을 개선

- 오랫동안 지방정부는 토지, 세제 혜택 제공을 통해 투자유치를 경쟁적으로 해 왔는데 중복투자 산업의 동질화 등 문제점을 표출함.

- 중국 최대 태양전지업체인 우시상더(无锡尚德)는 우시시(无锡市) 정부가 토지 무상제공, 세제혜택 및 국영기업의 자금이 투입되었으나 도산하였고, 그 피해는 지방정부와 지역경제에 전가됨.
- 우시상더는 2006~2011년까지 86억 위안 세금 환급 혜택을 받았으나, 실제 시정부에 지불할 금액의 10%에 불과한 정도의 적은 금액만 납부(贾根良 2020, p.134)
- 지방정부의 과도한 외자유치 경쟁은 결과적으로 지역 로컬기업의 자생력을 잃게 했음.
  - 지방정부는 지역개발 자금 부족 해결을 위해 외자기업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했는데 이때 외자기업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로컬기업들은 상대적 박탈감에 빠짐.
  - 외자기업을 위한 투자인프라 조성과 노동자들이 외자기업으로 몰리면서, 지역의 로컬기업들은 구인난과 임금상승 압박에 직면함.
- 지방정부의 과당경쟁은 내수시장 분할을 초래함.
  - 각 지방정부는 도로, 지하철 확장 추진을 하면서, 기초공정의 핵심 분야인 터널 굴착기계 공장을 설립하였는데 기대에 못 미치고 있음.
  - 굴착기계의 핵심기술을 확보하지 못해서 외자기업들에 의존하고 있으며 외자기업들이 내수시장을 장악하는 기회만 제공한 결과임(贾根良 2020, p135).
- 지방정부의 과당경쟁은 중국의 동부지역과 중서부의 지역격차를 더욱 멀어지게 만들었음.
  - 동부 연안지역은 외자기업의 접근이 편리함에다가 토지, 세금 및 임금 보조금을 지원해서 중서부 투자를 외면하게 됨.
- 지방정부의 과당경쟁은 중국의 자원, 환경, 생태계를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함
  - 대다수 지방정부가 세운 첨단기술산업단지에는 실제로 기술력이 없는 노동집약적 종사 기업들이며 고오염, 고에너지 산업으로 수질오염, 대기오염, 토양오염 등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원인이 됨.

### 3. 쌍순환 전략의 유망 산업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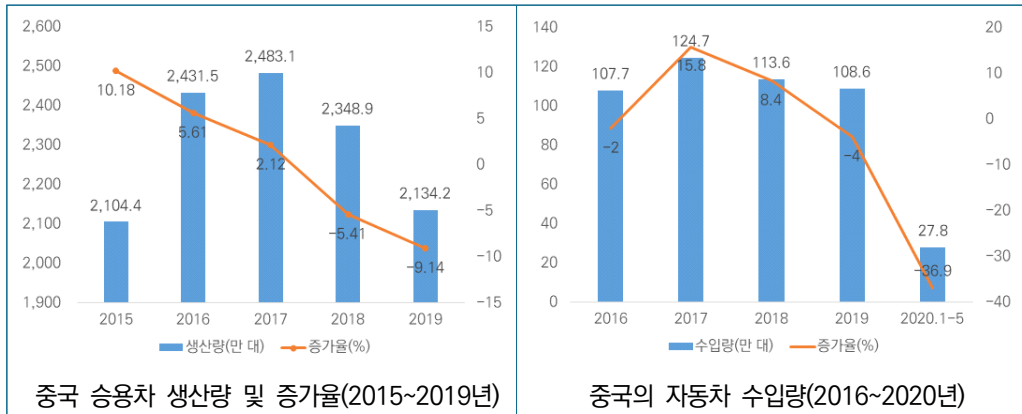
#### ■ 의료

- 중국의 의료 인프라, 의료장비 및 공공 서비스 수준이 고객들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음.
- 베이징, 상하이, 광둥성 등 일부 대도시에 국한되어서 의료보건 산업의 투자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나 수요대비 서비스 공급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임.
- 2019년 중국 헬스케어 산업은 주로 의학, 디지털 헬스케어, 의료서비스 분야에 집중되어 있음.
  - 그중 제약 분야의 자금 조달은 98건, 2,839억 위안, 디지털 의료 분야는 82건, 191억 위안, 의료서비스는 81건, 1,443억 위안임(九州纵横 2020/7/21).
- <14·5 계획> 기간 동안 도시화 확대 아래 의료 시설 확장에 주력하고자 함.
  - 최신 정보처리 기술을 의료보건 산업에 결합하고 생명 과학, 원격진료 등 상호 유기적으로 통합 발전하도록 함.
  - 유전자 치료, 세포 치료, 세포 3D 프린팅 기술 분야는 인류의 삶과 건강을 한층 향상할 수 있는 분야로 산업화 실현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음.
  - 중국정부는 이러한 첨단기술 육성과 도입으로 의료서비스난을 해소하고 고객의 욕구를 해소할 것으로 기대함.

#### ■ 자동차

- 중국은 세계 최대 자동차 시장으로 성장함과 동시에 자동차산업이 국가 경제의 핵심산업으로 자리 잡음.
- 중국 자체의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업체 수의 지속적인 증가와 브랜드 가치도 향상됨.
  - 중국 자체 생산 증가로 2019년에 1,086만대를 수입하여 전년 대비 약 4% 감소했으며, 2020년 1월부터 5월까지 총 27만 8,000대를 수입하여 전년 대비 36.9 % 감소함(锐观网 2020/7/3).

[그림 2] 중국 승용차 생산량 및 수입량



자료: 锐观网(2020.7.3.) 그림수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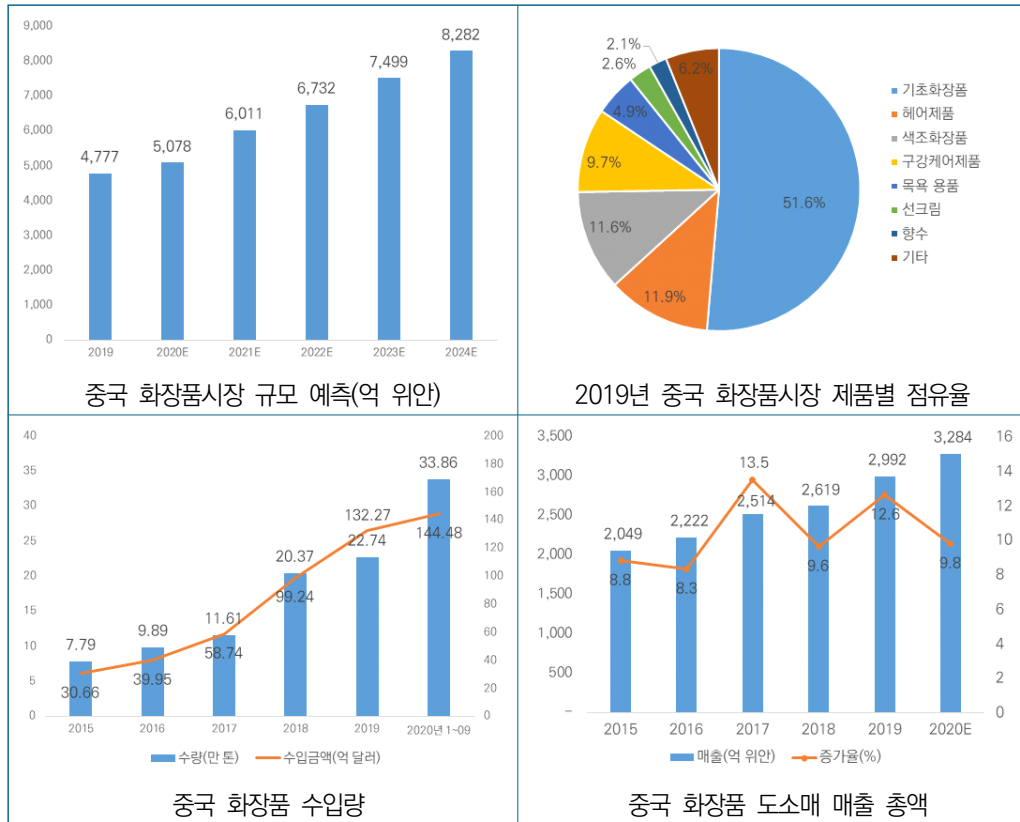
- <13·5 계획> 기간 동안 중국은 전기 자동차와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산업이 빠르게 발전함.
  - 비록 국가 보조금 정책은 감소하였지만, 업계의 투자는 계속됨.
  - 특히 신에너지 분야 자동차 연구개발로의 전환은 투자 및 전문인력 육성에서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음.
- 2020년 9월 중국 정부는 신에너지 자동차 보급 목표와 전략 계획 등을 담은 「신에너지자동차 산업 발전 계획(新能源汽车产业发展规划(2021~2035년))」을 발표함.
  - 중국의 새로운 에너지 자동차산업은 제품 기술 연구 개발, 생산 및 제조 산업 시스템을 이미 형성하고 있음.
    - 신에너지 자동차산업 클러스터는 ‘베이징-톈진-허베이 산업클러스터’, ‘창장삼각주 산업클러스터’, ‘서부 산업클러스터’, ‘중앙 공업클러스터’, ‘동북지역 산업클러스터’ 등이 있음.
  - 이를 통해 2025년 신차 판매 중 신에너지 자동차가 차지하는 비중을 25%로 확대하고자 목표를 수립함.
  - 2017년 계획에서 2025년 중국의 전체 자동차 생산 목표는 3,500만 대였으며, 이를 바탕으로 계산하면 2025년 중국 신에너지 차량 판매 목표는 875만 대로 추정됨 (아주경제 2020/10/12).



## ■ 뷰티

- 최근 몇 년 동안 중국 경제의 급속한 성장과 함께 중국의 화장품 소비가 빠르게 증가함.
  - 그리고 주민들의 소득 증가, 화장품 소비 개념의 변화에 따라 화장품은 점점 더 많은 소비가 예상됨.
- 2019년 중국 화장품 산업의 전체 시장 규모는 477.7억 위안으로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연평균 9.9% 성장함.
  - 2019년 스킨케어, 헤어케어, 컬러 화장품이 화장품 소비 시장의 주력 제품으로 자리 잡음.
    - 이들 3개 제품이 시장의 약 75%를 점유하고 있으며, 그중 스킨케어 제품 시장은 약 244,415억 위안으로 51.2%를 차지함.
  - 중국 화장품 산업의 시장 규모는 2024년 8,282억 위안으로 예상되며, 2019~2024년에 연간 약 11.6%에 이르는 급성장기로 예상됨.
- 2019년 중국 화장품 소매 판매액은 2,922억 위안으로 2015년(2,049억 위안)에 비해 9.9% 증가함.
- 2020년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아 마스크를 착용은 화장품 수요가 감소하고 화장품의 총판매량이 감소하였으나 코로나19가 일상화되면서 침체기는 금방 종료되는 상황임.
- 2020년 1월부터 9월까지 전국 화장품 판매액은 2,293억 위안으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4.5% 증가함(中商产业研究院 2020).
- 중국 상업연구원은 2020년 전국 화장품 판매액이 3,284억 위안으로 전년 대비 9.8% 증가할 것으로 예측함.

[그림 3] 중국 화장품 시장 규모 및 소비 현황



자료: 中商产业研究院(2020)

## 4. 전망 및 한국기업의 대응방안

### 1) 중국 시장의 변화 예상

#### ■ 제조업

- 중국 정부와 기업 스스로가 제조 강국 확립을 위한 고품질 생산과 이를 위한 기술 확보로 산업고도화를 이룩하고자 함.
  - 과거 개발을 우선시하는 시스템에서는 정부가 지나치게 산업공급망에 개입·통제해서 핵심 경쟁력 확보가 어려웠고, 기업과 주주 가치가 침해되는 문제가 있었음.
- 중국정부가 국유기업과 민간기업 상호 협력하는 경영 메커니즘 장려로 상호 이익 극대화를 유도하고 있음.
  - 텐진, 산둥에서는 국영기업 개혁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며 <14·5 계획> 기간 동안 개혁 속도는 가속화될 전망이다.
  - 2020년 6월 《국유기업 개혁 3년 행동방안(国企改革三年行动方案)(2020~2022년)》을 통해 국유경제의 경쟁력, 혁신력, 통제력, 영향력, 위기대응력 등 5개 역량 강화함으로써 국유 경제 구조 고도화와 구조조정을 추진하고자 함(每日经济新闻 2020/7/1).
- 국가적 경제 협력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중국은 자국의 핵심산업 육성 필요성을 더욱 자각하고 투자에 더욱 적극적임.
  -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(RCEP)을 계기로 GVC 재편 속에 한국, 일본 등 참여국들과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이기 때문에 중국 내부에서도 경쟁력 강화 노력을 요구하고 있음.

#### ■ 소비재

- 코로나19 영향이 점차 완화됨에 따라 중국 소비는 회복세로 전환되어서 ‘보복성 소비’까지 기대하게 함.
  - 코로나19로 억눌렸던 소비가 폭발하는 ‘보복성 소비’는 젊은 층에서 더욱 활발한 경향을 보이며 기업과 지방정부에서는 소비 진작에 나서고 있음.

- 보복 소비 경향은 고가의 프리미엄 제품으로도 확장되어서 온라인을 통해서도 판매가 진행되는 변화가 일어남.
- 2020년 2분기 이후 소비가 확대되고 있으나 국산 브랜드보다는 외국산 브랜드 지향적 소비가 문제점으로 대두됨.
- 중국 젊은 소비자들 속에서 소비를 자아 표현 수단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가성비보다는 대중화된 '빅 브랜드' 구축이 시급한 상황임.
- 코로나19를 계기로 디지털 판매 마케팅은 표준 모델로 자리 잡아서 소비의 보편적 일상이 됨.
- 코로나19로 인한 소비자의 외출 자제로 내방객이 크게 감소함에 따라 고객을 배려하는 언택트 마케팅과 서비스가 대안으로 부상
- 실시간 라이브 영상을 통한 판매·구매를 하는 라이브커머스 마케팅이 일시적 트렌드가 아닌 새로운 표준으로 정착함.
- TV홈쇼핑은 쇼핑 호스트가 일방적으로 제품을 설명하는 방식이어서 소비자의 궁금증을 즉시 해소할 수 없지만, 라이브커머스는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시간 소통이 가능
- 코로나19 확산을 계기로 짧은 동영상(숏 비디오), 라이브 스트리밍 방식의 상품 판매가 소비재 판매의 일상으로 정착함.
- 최근의 라이브커머스는 소비재뿐만 아니라 자동차, 건설장비, 부동산 등 다양한 업종으로 확대됨.

## 2) 한국기업의 대응방안

### ■ 비대면 해외마케팅 강화

- 해외 온라인몰 입점 지원, 라이브커머스 추진 등 비대면 방식의 해외 마케팅(판매)을 강화하는 수출 방식의 변화가 필요함.
- 장소 제약없이 소비자와 실시간 소통을 통해 판매자의 제품 궁금증을 해결하고 직접 판매 할 수 있는 '라이브커머스'가 국내외 유통 채널로 부상함.

- (지방)정부는 오프라인 마케팅에 비해 해외마케팅 방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기업들에게 샘플비지원 및 출장지원이 필요함.
  - 해외바이어 대상 직접 제품 설명 및 기술 시연에 제약이 있으므로 수출기업에게 제품 샘플비 및 해외택배비 보조가 요구됨.
  - 코로나19로 기업들이 해외출장 제한적이기 때문에 KOTRA 무역관 및 지방정부의 해외무역사무소 상호 협력을 통해서 수출기업들을 대리 지원(영업·마케팅)하는 에이전시 역할도 필요함.

### ■ 특혜관세의 적극적 활용

- 기업들은 세계 최대 자유무역협정(FTA)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(RCEP)과 한중FTA의 관세 혜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수출전략 요구됨.
- RCEP 국가들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최소한의 서류로 관세 인하 효과를 적용 받을 수 있고 원산지증명 관리도 용이해짐.
  - FTA는 협정 상대국이 물품의 원산지인 경우에 한해 협정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수입물품의 원산지가 협정 상대국임을 증빙하는 서류(원산지증명서)가 필요함.
  - 원산지증명서는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해야만 발급받을 수 있고, 또한 올바른 발급주체가 발급한 것에 한하여 유효하며 일정기관 보관 의무가 있음.
- 한중 FTA 재협상(서비스·투자) 후속 절차에 따라 특혜관세 적용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 필요함.
  - 현재의 한중 FTA 효과는 낮는데, 후속 협상으로 품목범위 및 관세인하 효과에서 진전이 있을 것으로 예상함.

### ■ 기회 모니터링

- 중국은 여전히 거대 수출시장으로 비즈니스 기회가 적지 않기 때문에 기회 활용을 위한 대비가 필요함.
  - 또한, 중국 시장은 여전히 한국기업에 기회의 땅인 만큼 쌍순환 발전전략 아래서 유망업종에 대한 발굴 및 지원책 마련이 필요함.

- <14·5 계획>에 따른 기회 요인과 성장요인을 중심으로 지속적 모니터링하는 한편 중국의 내수활성화 전략을 기업 성장의 기회로 삼아야 함.
- 쌍순환 정책의 추진은 글로벌 교역 및 투자 흐름에 변화를 촉진할 가능성이 있고, 한국과 같은 수출국엔 부정적 영향이 우려 속에 내수시장 진출에 대한 새로운 기회 요인도 공존하고 있음.

## ■ 중국 로컬기업과 협력

- 한국 기업들은 중국과의 합자(합작) 및 협력으로 상생하는 효과적 대응이 필요함.
- 한국은 중국 내수시장 진출에 대해 더욱 분석적이고 지역마다 맞춤형 전략 수립이 필요함.
- 중국 각 성·시마다 특화된 제품, 차별화된 판매 공급가격 및 마케팅 전략 전개가 필요함.
- 한·중 FTA 협상 진전 기대 및 GVC 구조 개편으로 양 국가 및 기업의 소통과 협력은 더욱 중요해졌음.
- 한·중 FTA의 서비스, 투자 및 금융 분야의 후속 협상이 진행되고 있으며 현재보다는 FTA 체결 효과가 더 높을 것으로 예상함.

## ■ 투자 유망분야 진출

- 자동차는 전기자동차, 수소자동차와 같이 친환경으로의 전환을 고려한 GVC를 확장하고, 이에 부합하는 부품공급 업체들의 마케팅과 투자 진출을 지원해야 함.
- 기존 디젤 연료 자동차의 생산 관련한 부품공급은 이제 중국에서도 성장 한계점에 도달했기 때문에 전망이 밝지 않음.
- 중국의 소득 증가, 급속한 고령화는 개인 건강 관리의 관심이 높아져서 의료기기 시장은 우리 기업들에 기회 요인으로 부상함.
- 중국 정부 차원의 의료기기 적극 육성도 업체들에 큰 기회로 다가오기 때문에 중국 의료기기 업체들과의 협력을 모색하고 고급제품군의 시장 진출을 준비해야 함.
- 중국의 원격진료 허용과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 성장에 적극적 대응이 필요함.

- 한국의 수준 높은 의료인력, 의료기술 및 IT 기술은 대중국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음.
- 중국 정부가 투자를 장려하는 친환경, 고효율 에너지 분야에서 공동협력 모델 창출 필요함.
- 기존 수질오염, 대기오염, 토양오염 등을 개선하는 상호발전적 협력이 필요함.

## 참고자료

- 장정재(2020). “제14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추진 방향과 시사점”. 『부산발전포럼 제186호』, 38-45. 부산연구원.
- 김동하(2020). 「중국 제14차 5개년 계획 내 경제분야 특징과 시사점」. INChinaBrief Vol.391. 인천연구원.
- 코트라(2020), 「2021년 수출전망 및 사업 운영계획」, p.4
- 胡鞍钢(2020). 「14·5大战略与2035远景」. 东方出版社
- 贾根良(2020). 「国内大循环」. 中国人民大学出版社
- 中商产业研究院(2020). 「2021年中国化妆品行业市场前景及投资研究报告」
- “향후 5년 중국경제 밀그림, 14.5 기획 전망” 코트라 해외시장뉴스. 2020. 10. 20.  
<https://news.kotra.or.kr/user/globalBbs/kotranews/3/globalBbsDataView.do?setIdx=242&dataldx=185397>(검색일: 2021년 1월 16일)
- “제14차 5개년 계획으로 보는 향후 중국경제 발전 방향” 인민화보. 2020. 12. 11.  
[http://www.chinacore.com/krsdbd/202012/t20201211\\_800229717.html](http://www.chinacore.com/krsdbd/202012/t20201211_800229717.html)(검색일: 2021년 1월 16일)
- “중국, ‘공장’에서 ‘시장’으로…5중전회 쌍순환 전략 채택” 중앙일보. 2020. 10. 29.  
<https://news.joins.com/article/23907261>(검색일: 2021년 1월 16일)
- “이제는 바이드노믹스 시대! 분야별 세부정책과 우리 기업에의 영향” FedEx코리아. 2020. 12. 30.  
<https://post.naver.com/viewer/postView.nhn?volumeNo=30350203&memberNo=40955917>(검색일: 2021년 1월 18일)
- “2020年GDP初步核算增长2.3%” 杭州网经济新闻. 2021. 1. 20.  
[https://news.hangzhou.com.cn/jjxw/content/2021-01/20/content\\_7896776.html](https://news.hangzhou.com.cn/jjxw/content/2021-01/20/content_7896776.html)(검색일: 2021년 1월 23일)
- “未来两年，如何真正践行价值投资？” 21世纪商业评论. 2020. 12. 22.  
<https://baijiahao.baidu.com/s?id=1686785837005593772&wfr=spider&for=pc>(검색일: 2021년 1월 23일)
- “医疗健康产业十四五规划解读” 九州纵横. 2020. 7. 21.  
[https://zhuanlan.zhihu.com/p/162051958?utm\\_source=wechat\\_session](https://zhuanlan.zhihu.com/p/162051958?utm_source=wechat_session)(검색일: 2021년 1월 23일)
- “2020年中国汽车进出口市场现状与竞争格局分析” 锐观网. 2020. 7. 3.  
<https://www.reportrc.com/article/20200703/10438.html>(검색일: 2021년 1월 23일)
- “十四五规划：构建中国经济发展新格局” 国金证券研究所. 2020. 10. 22.  
<https://xueqiu.com/8364818819/161429423>(검색일: 2021년 1월 18일)
- “国企改革三年行动方案获通过 专家：抓重点、补短板、强弱项将是关键方向” 每日经济新闻. 2020. 6. 30.  
<https://baijiahao.baidu.com/s?id=1670939853625261533&wfr=spider&for=pc>(검색일: 2021년 1월 16일)
- 중국국가통계국(<http://www.stats.gov.cn/>)